포항 '싸나이' 이종식 회장

"죽기 전에 실내코트 5면 건립이 꿈"

4년째 참가비 없는 대회 열어

"테니스가 역시 의사이고 보약이다."

테니스가 운명도 바꾼다고 철석같이 믿는 전 경북테니스연합회 이종식 회장. 인생은 여행! 순탄하기만 한 여행은 재미가 없다. 길을 잃기도 하고 차도 펑크 나고 이런저런 고생을 해 봐야 더 짙은 추억이 생긴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어준 친구는 평생 더 잊지 못한다. 테니스가 한 평생 동고동락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이종식 회장. 올해 나이 66세로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의 회장 중에서 가장 최고령이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절정에도 테니스가 있었고 가장 커다란 고비를 맞을 때에도 테니스가 있어서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인생 스토리를 펼치는 이종식 회장의 탄력 있는 삶을 엿보게 되었다. 알록달록한 색종이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종식 회장의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종식 회장은

1944년 4월25일 경북 포항 출생
(주)동부녹화토, 동부영농조경(주) 대표
2000~2002년 포항시테니스협회 회장
2007~2010년 국민생활체육경북테니스연합회장 역임

위암 · 췌장암, 테니스로 이겨내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테니스가 도움이 되었나요?

=목 디스크로 상당기간 고생을 하여 수술을 했고 위암으로 암수술을 받고서도 그 어려운 경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테니스 덕분이다. 테니스 라켓만 잡으면 어떤 병마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3개월 동안 운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사선생님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목에 받침대를 달고서도 두 달 이상을 테니스를 할 정도로 테니스가 좋았고 위암수술 한 달 반에 테니스코트 땅을 밟으니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은듯한 기분이 들었다.

앓던 병은 모두 치료가 되었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테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테니스는 시작과 실력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 했는데 맨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너무 못해서 레슨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혹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느냐고 질문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어설프게 테니스를 하다 보니 질문을 받을 정도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테니스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며 갈고 닦아 지금은 60대에선 웬만큼 자신이 있다.

지난번 경북도지사배를 경주에서 하게 되었는데 포항시 7복 대표 선수 중 60대로 나가 모두 이겨 포항시에 최종 우승기를 안겨 주는데 일조할 수준은 된다.

–경북, 특히 포항시의 테니스 현황은 어떤가요?

=경북은 10개시 13개 군으로 되어 있어 남한의 23개 시 군중에서는 면적이 제일 넓은 편이다. 포항시는 타 도시에 비해 코트 여건이 빈약했으나 올 9월에 하드코트 9면을 개장할 예정이다. 10년 전 포항시협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바라던 숙원사업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다. 오픈 개장일에 개장식 겸 포항시장배를 열었다.

–이야기 중에 포항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 이유는

=포항은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고향이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은 포항시에 실내코트 5면을 건립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코트를 만들고 싶다. 또한 포항 고등학교에 있었던 테니스부가 없어져 안타깝기 그지없다. 초등학교부터 연계가 되어 주니어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들이 테니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62세인 아내(정혜숙)는 조용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테니스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끝없이 양보하고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당신은 테니스에 인생 전부를 올 인한 사람이다"라고 늘 말하면서도 오늘날 건강하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내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딸들을 키우는 중에 머리가 우수해서 경북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을 때 기뻤고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자신의 길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큰 기쁨이고 보람이다.

–별명은

=하이에나. 매사 적극적이고 한번 물면 놓지 않을 만큼 끈질기다 해서 얻은 별명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최선을 다 하며 살았다는 기분이 든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북연합회장을 맡았을때 바빠서 각 지방에서 열리는 이순대회에 거의 출전을 못했다. 앞으로 여행하듯 친구들 만나러 순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테니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어느 지방에나 전국 투어 여행을 다닌다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솟는다.

취재후기: 매일 저녁마다 테니스를 하고 싶어 사업적인 약속은 모두 낮에 다 해결하고 코트로 향한다는 이종식 회장은 암을 앓았던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빛이 화사했다. 신성한 정신을 대변하는 이미지는 열정이다. 마음속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활기와 힘이 넘쳐흐르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듯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내 이종식 회장의 모습은 환희에 차 있었다.

마치 긴긴 마라톤 코스를 땀 흘려 완주해 온 사람처럼 기쁨으로 점철된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글 · 사진 송선순 동호인 전문기자

제4회 다백(多白.이종식)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

▶ **주최** OK 테니스클럽
▶ **주관** 국민생활체육경북테니스연합회, 국민생활체육포항시테니스연합회
▶ **일시** 2012년 10월 21일(일) 09:30 ~(우천시 1주 순연)
▶ **장소** 경북 포항시 뱃머리 시민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
▶ **부서** 단체전 금배부, 단체전 신인부
▶ **경기방법** 금배부는 5복식으로 진행하며 3번은 여성조(남자도 1947년 이전 출생자 출전가능)출전해야 함, 신인부는 3복식으로 1번 신인부, 2번 여성부, 3번 은배부 이하로 고정하여 경기
▶ **선수구성** 신인부 : 은배부 이상 출전 경험자 출전 불가
여성부 : 남자도 1947년 이전 출생자는 출전 가능하며, 타 클럽 회원을 대리 출전 시킬 수 있음
은배부 : 금배부 출전 경험자 출전 불가(단 60세 이상은 가능)
▶ **참가자격** 포항시 및 울릉군 소재 테니스 클럽 동호인(비등록 클럽도 참가 가능), 경북 포항 울릉 주민등록 거주자 만 25세 이상
▶ **신청방법** 이메일 ilove0152@hanmail.net
▶ **신청마감** 2012년 10월 13일
▶ **참가비** 없음
▶ **대회 사용구**
▶ **경기규칙**
– 전 경기 6:6 타이브레이크(노애드 시스템 적용 안함)
– 조별예선리그 후 1,2위팀 결승토너먼트
– 동률일 경우 승자승 〉 득실 〉 추첨순
– 기타규칙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을 준용하여 대회본부에서 결정
▶ **문의**
다백(多白) 이종식(010-6519-1500)
OK 테니스클럽 이창준(010-8594-5757)
▶ **기타사항**
개회식 없이 09:30에 바로 경기 시작
참가선수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시상**
• 우승 상장 및 현금 50만원
• 준우승 상장 및 현금 30만원
• 공동3위 상장 및 현금 20만원
• 8강(4팀) 현금 각 10만원
• 16강(8팀) 현금 각 5만원